

# Newsletter

**안녕하세요? 김영선 선교사입니다.**

2023년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네요. 돌아보면 2022년은 어느 해보다 시간이 두 배 빨리 지난 듯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Happy New Year!!! 한국과 미국에서는 눈 소식이 들려오는데, 탄자니아는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 점점 더 더워지고 있어요. 이와 같은 때에, 저는 탄자니아를 떠나 현재 두바이 공항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글로벌미션중학교 시작 때부터 한국어를 가르치며 Study Trip to Korea를 꿈꿔왔는데, 마침내 두 여학생과 함께 여행을 시작했답니다. 학생들은 1주 전부터 저의 집에 와서 목으며, 비자 인터뷰도 하고, 말라리아 체크도 하고 저널도 쓰면서 이번 여행을 준비했고, 모든 것이 새롭고 처음 해보는 것이라 함께 가는 메리스텔라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교사님, 제 눈이 카메라였으면 좋겠어요. 모든 순간을 찍어두고 싶거든요.” 아이의 기쁘고 신나고 벅찬 마음이 확 느껴집니다. 앞으로 펼쳐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척 기대됩니다.

**글로벌미션중학교 소식.** 2022년 12월초, 방학을 앞두고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릴 때, 학생들과 교직원들 - 모두가 가장 감사한 것을 한가지씩 나눴습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마이크 잡고 수줍어하는 학생들도 많았지만, 모두 신실하신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찬양했답니다. 특별히 2학년 학생들은 10월말, 3학년 진급을 위한 국가고시를 치렀기에, 큰 도움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다” 고백했습니다. 시험결과가 어제 (1/4) 나왔는데, 41명 모두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학생들과 부모님들 모두 기뻐했고, 저에게도 많은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답니다. 수고한 올 선생님들, 학생들 자랑스럽네요.

사실, 국가고시가 끝난 다음날, 1&2학년 학생들 모두 데리고 인도양 비치에 놀러갔었습니다. 인도양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아이들은 그대로 뛰어 들어가더군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얼마나 신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험의 무게를 벗어버린 학생들 위해 5주간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Word & Power Point를 가르쳤고, 키보드-드럼-댄스 수업을 추가했답니다. 항상 한국어 수업이 인기 최고였는데, 댄스가 가장 핫한 수업 교직원들도 저도 학생들과 함께 찬양을 따라 부르며 춤을 추면서 너무 행복하게 2022년 마지막 학기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타워 봉헌예배.** 12/2일 감사예배 드리는 날, 기도타워 봉헌예배도 드렸습니다. 이것은 (미국) 북일리노이 연회소속 한인여선교회 연합회의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헌금으로 세워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의 문들은 닫혔지만, 여선교회 연합회 회원님들은 도토리 국수를 열심히 파시면서 펀딩을 하셨고, 미국정부에서 준 생활보조금조차도 9분이 건축헌금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어려운 때에 기쁜 맘으로 헌금하신 여선교회 회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타워 자리는 글로벌미션중학교 건축이 시작될 때부터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곳입니다. 학교의 아이 콘인 기도타워는 다른 건물들에 비해 훨씬 작아서 쉽게 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의 완전한 착각이었죠. 12개의 콘크리트 철근 기둥들이 뿔뿔이 나와 깜짝 놀랐었습니다. 펀디(일꾼)들이 “이 정도는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너무 속상해서 많이 울었고, 옆드려 기도하고 일어 났을 때는 모두 부수고 다시 하자고 해서 현지 펀디들이 깜짝 놀랐었죠. 또한, 기도타워 지붕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12미터이다 보니, 많은 돈을 요구해서 믿음과 실력을 갖춘 사람을 찾는 데도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 Newsletter

기도타워 봉헌 예배때, NIC 한인여선교회 연합회에서 한 분이라도 꼭 오셨으면 했는데 회장이신 김완순 권사님이 오셔서 너무 감사했고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사랑과 헌신이 탄자니아의 다음 세대와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말해주었고, 학생들은 대표로 오신 김권사님을 에워싸고 간절히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권사님과 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학생들도 고무되어 진지하게, 간절하게 찬양하며 봉헌예배를 잘 드렸답니다. 이 순간도 그 날의 여운이 밀려오네요 .

**교회 건축 시작.**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남자 기숙사 반쪽과 3개의 사무실과 작은 세미나실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23년 1/15일 개학이라 펀디(일꾼)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편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카고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GMSS 캠퍼스에 짓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건축3단계에서 꼭 지어야 할 것이 다목적 강당이었는데, 하나님은 다목적으로 쓰여질 교회건물(예배당)을 계획하셨네요 10월 초에 제일교회에서 3명의 단기팀이 왔다 가실 때, 가능하면 올해 건축을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는데, 동의해주시고 헌금을 보내주셔서 11/21일, 교회건축 기초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달라지는 건축현장을 기도타워에서 내려다보며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영적 싸움들이 있겠지만, 또 승리하게 하실 거라 믿고, 2023년 7월에 제일교회 단기팀과 함께 봉헌예배 드리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주님이 풀타임 선교를 40대중반에 허락해 주셔서, 저는 목회를 하며 단기선교를 20년 정도 다녔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교회 건물은 현지인들이 스스로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탄자니아에 와서도 연합감리교회들의 지붕이나 바닥 공사는 도왔어도, 제가 교회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일교회의 결정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학교가 선교베이스라고 여러번 말씀해주셨는데, 강당 지을 생각만 하고 교회를 지을 생각을 못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답니다. "주님, 용서하세요." 이번 백주년 기념교회 건축을 통해 무엇을 하든 100년을 내다보며 해야겠다는 것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다는 결단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무슬림지역의 Nifuate 미션센터 Nifaute (의미"Follow me") 미션센터는 코로나가 한창 심했던 2020년 5월에 시작이 되었는데, 벌써 2년 7개월이 지났네요. 신학을 공부한 요나스를 제외하고는 청년사역자들이 해마다 바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양한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예배, 수요 기도회, 반과 후 프로그램들, 마을 축제가 된 스포츠데이, 재봉교실, 구제사역,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아웃리치 등등. 90%이상이 무슬림인 마을이라 사역지에 갈 때마다 신기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때 200가정 (581명)이 하루 만에 등록을 하셔서 깜짝 놀랐지요. 예수님 생일날이니 "Happy Birthday Jesus" 함께 부르자고 했더니, 모두 각자의 크고 작은 목소리로 예수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아직 세례를 준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있으니 열매 맺는 날도 있게 하실거라 확신합니다.

**8월18일 역사적인 날.** 은퇴하신 장성근&허정혜 시니어선교님 부부가 허락해주신 땅에 Nifaute Mission Center를 개척하고 그동안 사용해왔는데, 지난 8월에 땅 4에이커(4,800평)를 탄자니아 연합감리교단에 기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무너진 담장을 다시 쌓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앞으로 법적인 절차가 끝나 땅문서를 받으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유치원도 짓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협동농장도 해보고 싶습니다.

# Newsletter

한가지 더 좋은 소식은 지난 1년동안 미션센터에서 잘 섬겼던 요하나가 탄자니아의 최고 대학인 다르살렘 대학에 합격한 것입니다. 요 하나는 2017년 고등학교를 1등급으로 졸업 했음에도 너무 가난해서 대학을 갈 수 없었고, 저를 찾아왔을 때는 밤낮으로 수박밭을 지키는 일을 5년째 하고 있었답니다. 제자훈련 받고 1년동안 열심히 섬기면서 다시 대학진학을 준비해보자 제안을 하자 그러겠다고 했고 정말 기도하며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요하나의 삶의 길을 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은 최고 .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Nifuate Mission Center 와서 섬긴 7명의 청년들 모두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셨기에 마태복음 6:33절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행복하다.** 2021년 학교 문을 열었을 때부터 한국어를 가르쳤는데 생소한 언어를 목적없이 배우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해서, 2년후에 평가를 해서 한국에 가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었죠. 학업, 성경, 한국어 각각 30%를 고려해서 7명을 뽑고 다시 경쟁을 붙여서 3명을 뽑았는데, 남학생은 여권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메리스텔라와 에리카만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두 여학생들은 한국어 Intensive Study를 하게 되는데, 1학년 신입생들의 기초 한국어를 가르칠 예정입니다. 물론, 구경도 좀 하고 교회들도 방문하고 한국의 기독교역사나 문화체험도 하게 되겠죠. 기쁨과 배움과 감사함이 충만한 한국방문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꿈을 이뤄 주시는 주님께서 학생들과 저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 주실지, 어떤 만남을 주실지, 어떤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한국방문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걱정하기보다는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변함없이 탄자니아 선교에 동참해주시는 동역자님을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안에서 사랑합니다.

탄자니아에서 말씀따라 성령따라~~~ 김영선(크리스티나) 선교사 드림.

**※선교후원 방법:**

(한국) 신한은행 100-030-160224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미국연합감리교단 세계선교부 한국사무실에서 연말정산시즌때 세금공제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선교후원금 입금 후에는 메일로 (yskim1023@gmail.com) 또는 카톡으로 (Tanzania.GMSS.1470) 연락 부탁드립니다.

(미국) 체크 메모란에 Advance#3022281(사역비후원) 또는 Advance#3021957 (생활비후원) 선택해서 쓰시고, 선교국 재정담당부서로 직접 보내시면 됩니다. Please make your check payable to Advance GCFA at P.O.Box 9068. New York, NY 10087-9068. Thanks a million!!!

※가능하시면 소그룹이나 친구분도 탄자니아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yskim1023@gmail.com

카톡ID: Tanzania.GMSS.1470 (새아이디). 전화번호/Whatsapp: +255657438955

FacebookID: Young Seon Kim